

「대한간호」 100호 기념

이 철 경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장)



간호협회의 활동이 어느 여성단체보다도 훌륭하게 그 착실한 실적을 쌓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과학적인 학문을 수련한 인재들이기 때문인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조직을 강화하고 유대를 이끌면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자질향상과 권익옹호 운동에 맘과 힘을 모으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단체의 이상이긴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현한다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도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호협회 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회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경 간협신보 지령 100호를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크게 감격하였고 훌륭한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간호협회를 부러워했는데 이제 또 그 회지 「대한간호」가 발간된지 100호를 떠난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지는 회원간의 소식을 교환하는 친목과 격려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그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개인의 힘이 필요하면서도 독불장군이 용납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는 우수한 개인의 소신과 외침이라도 이것을 한데 뭉치고 모으는 일이 없이는 체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사회윤리 때문에 회지는 그 역할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의 모음과 학문의 협의와 기술적 정보교환들은 회원들의 개인적 자질향상을 촉진하며 간호국민들의 사회참여에도 크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아닌 사회에 던져주는 계몽과 지식전달도 그 역할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보건에 대한 상식과 육아에 대한 지식, 직장에서의 보건위생,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지식과 활용상식등 모두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과학적 지식들이 이 회지에 의하여 보급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간호원들의 봉사정신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회자를 읽으면서 더욱 감명 깊게 그들의 희생적 노고를 인식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도 가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 지금까지도 놀라게 뻗어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눈부신 발전을 기약하고 있는 줄 압니다. 중화학 공업국으로 발돋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형편은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온갖 원료를 모두 수입해야하며 막대한 투자도 국민의 힘으로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료를 자생하는 나라에서도 공업과정의 집약투자는 힘이 드는 것인데 우리는 원료도 돈을 내고 사와야하고 공업과정에 집약투자도 우리 손으로 해야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국민보건은 그 뜻도 중요합니다. 온 국민이 건강하여 모두 자에게 지워진 책임을 다 해낸다는 일은 정말로 바람직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해는 날로 심해가지만 이러한 여건에서

시설이나 활동까지를 겸하면서 중화학 공업화란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지키며 보호해 살도록 보건상식은 보급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간호」지가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에 앞장서서 간호원의 인권을 보장받는 투쟁역할도 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보건을 위하여 그들의 스승도 되고 데변인도 되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끼쳐주신 공로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셔서 알차고 충실한 회지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호협회 회원은 물론 모든 가정주부, 직장인 근로자들까지도 관심갖고 읽는 훌륭한 교양지가 되어줄 것을 믿고 축하드립니다.